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김성미** 김현주***

The Impact of Integrated Character Education Activities Involving
Children's Songs o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pathic Ability

Kim, Sung Mi Kim, Hyun Joo

본 연구는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H지역에 소재한 J유치원 만 4세 유아 46명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12주 동안 매주 2회씩 총 24회 활동을 진행하였다. 한 회기 마다 동요를 배우고, 부르는 활동을 시작으로 이야기 나누기, 음악활동, 과학활동, 조형활동, 동작활동, 문학활동, 요리활동 등의 통합적으로 구성된 인성교육 활동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 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유아들과 인성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비교집단의 유아들 간 정서지능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둘째,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 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유아들과 인성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비교집단의 유아들 간 공감능력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앞으로 인성 교육활동을 위해 유아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동요에 대한 창작과 통합적 인성교육활동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동요, 통합적 인성교육활동, 정서지능, 공감능력

* 본 논문은 2015년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일부이며, 본 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을 확장한 것임.

** 제 1저자 : 주원 유치원 교사

*** 교신저자 : 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E-mail: khappyzoo@kyungnam.ac.kr)

I. 서론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관계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들이 점차 저연령화 되어 가는 추세 속에서 유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제가 심각하다. 요즘 유아들은 주로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휴대폰과 같은 전자기기의 접촉 시간이 다른 시대보다도 늘어났고, 핵가족화나 저출산에 따른 가족구성원의 변화로 인해 이에 따른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정서적 교류가 부족해졌다.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즉 공감능력이 부족하며 이러한 유아는 타인과의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사회풍토는 오늘날 유아들을 자기만 알고 남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려는 이기심, 더 앞서가기 위한 경쟁심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부족한 이기적인 아이로 성장하게 하며, 자기조절의 어려움, 협동성 부족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이효주, 2013).

Kurtines(1989)는 유아기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유아의 사회적 적응에 매우 중요하며, 유아가 상대방의 사고, 감정, 의도 등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에 필수적이라고 하였다(김진희, 2007, 재인용). 공감능력이란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능력은 타인의 의도와 행동을 이해하는 능력이 바탕이 되므로 성공적인 대인간 상호작용을 돕는다. 따라서 유아기부터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인성교육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윤선아, 2010).

또한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그러나 인간을 존재 그 자체로 보지 않고 도구로 여기는 현대사회는 갈수록 삭막하고 각박해지고 있다. 이윤옥(1998)은 적절한 감정 표현 능력,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능력, 원만한 대인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같은 사회성과 민주 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이 현 사회에서 더욱 요구된다고 말하며 인성 교육을 더욱 강조했다. 또한 선천적 재능이나 높은 지능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하는 반면, 몇몇은 성공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켜왔고, 성공과 정서지능과의 의미있는 관련성이 있음을 내포하였다. 교육전문가들은 학습자가 정서지능의 5개 영역 즉, 자신의 감정이해, 감정 조절, 자기 동기부여, 다른 상황에서의 감정 인식, 관계 조절에 대해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성장에 대한 영역으로 목표를 삼고, 결점을 극복하는 활동들을 계획하고, 정서지능과 연결된 행동들을 긍정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Richburg & Fletcher, 2002).

정서지능은 연령에 따라 발달의 영향을 받는데, 인간의 전 생애 중 유아기와 아동기가 정서지능이 발달하는 결정적인 시기라는 연구들(Goleman, 1995; Zeiner & Matthew, 2000)이 발표되면서 정서 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Goleman(1995)은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성과 감성이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다(김인희, 2011, 재인용). 정서지능(EQ)은 지능지수(IQ)와 달리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이며 정서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조절하는 능력으로 성인이 된 후에도 성인의 적응 능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성인의 대처 능력과 기술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문용린, 1997).

유아기는 지능의 발달속도가 매우 빠르고 인격의 기초가 확립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특히 6세를 전후하여 가장 활발한 지능발달이 이루어지며 취학 이전의 유아기를 어떤 교육적 환경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며 보냈는가에 따라 성인이 되어서의 능력과 인성이 결정된다(박옥희, 2001). 교육부에서는 ‘교육 과정에서 길러야 할 인간상’으로 도덕적인 인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아 교육 기관에서 실천 위주의 인성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백하게 한다. 미래의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구성원을 기르기 위해, 더 나아가 보다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어린 나이에서부터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그 교육 내용을 내면화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윤옥, 1998).

교육부는 유아교육에서 인성교육이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근 누리과정에서 인성교육의 구체적 덕목인 배려, 존중, 협력, 나눔, 질서, 효를 제시하고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구체적 활동들에 이러한 덕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 되었는지를 활동별로 제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또한, Licona(1993)는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에 대해 포괄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면서, 문학, 과학과 같은 학문적인 주제들을 사용하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인성교육의 가치들을 지도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학습자의 인성 개발을 위해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협력하는 능력, 조망수용능력, 이해력을 증진하기 위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협력적인 학습방법을 사용하도록 제시하였다. 유아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적 활동이 활용될 수 있으며, 통합적인 교육활동이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최근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인성교육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교수방법들을 활용하여 인성교육 연구들을 진행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동화를 활용한 인성교육활동(김영미, 김현주, 2015; 노미숙, 2014; 정영희, 2012; 최연우, 2013), 통합적 활동방법(이진희, 2014), 협력중심 인성교육활동(고운우, 2014), 동극활동을 활용한 인성교육활동(이현경, 2013) 등이 있다.

한편, 여러 문헌연구들(김수진, 2012; 이희영, 2011; 임여진, 2007; 정은진, 2010)에서는 음악교육이 유아들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지만, 음악교육을 통한 인성교육방법 연구를 살펴보면, 국악교육을 활용한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박연희, 2011)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유아기는 음악성 발달이 가장 활발한 시기로서, 성인에 비해 언어적 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유아들에게 음악은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며(곽영숙, 2010), 다양한 음악활동은 유아의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하고 상상력을 발달시킨다(이숙희, 1999). Greenberg(1979)는 음악과 유아의 생활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며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김인실, 1999, 재인용). 이처럼 음악은 유아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등과 같은 발달을 도모하고 유아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음악교육을 통해 유아 인성교육방법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 현장의 음악교육 활동 실태를 조사한 연구들(권유리, 2011; 김연희, 2011; 김우숙, 1997; 이미경, 2001; 정현주, 2005)에서 ‘새노래 배우기’의 가창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서 볼 때, 동요 부르기는 유아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가사를 담은 음악의 심리학적 효과에 대한 논문에서 Bandura(1977, 1986)의 사회인지이론에서 언어적 설득, 모델링, 대체경험은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형성하는 학습의 모든 유형들이라고 소

개하면서, 노래 가사는 사회적 학습의 이 유형들을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음악과 노래 가사가 영향력 있는 방법으로 인식되게 하고 효과를 주는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효율적인 도구들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Anderson, Carnagey, & Eubanks, 2003, Osuna, 2011, 재인용).

Wiehe(1996)는 노래에 의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언어적 메시지가 없는 기악곡보다 더 현저하게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살펴보면, 연구참여자들이 노래를 들었을 때 음률을 통한 노래가사를 들은 그룹과 가사만 듣는 그룹으로 나누고 각 노래가사의 함축적인 의미를 평가하도록 구성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두 그룹 모두 음악과 음악적 유형사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고, 노래가사를 구두로 전달된 그룹과 노래로 불러져 노래가사를 전달받은 그룹은 다른 수준의 차이가 있었다. 음악 유형에 따른 전달방식에 따라 함축적인 의미를 구성하는 데에는 사고와 감정의 상호작용에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원범(1992)이 밝혔듯이 유아들이 동요의 노랫말을 생각하면서 동요를 직접 불러보는 활동은 동요의 노랫말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듯 상상하며, 머릿속으로 정서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김우숙(1997)의 연구에서 ‘새노래 배우기’의 가창활동이 다양한 경험을 통한 음악활동이 아닌 노랫말 전달에 의존한 교사중심의 활동이라고 지적되었고, 송수현(2011)의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음악활동이 별다른 발전 없이 획일적이고 소극적인 상태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며 음악이 중심이 되기보다 부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여기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활동은 단순한 노래 부르기 활동이 아니라 노랫말이 지닌 의미에서 다양한 인성 요소를 찾아내어 여러 활동으로 연결하고 유아를 위한 인성교육활동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의 동요를 활용한 인성지도나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해 보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곽진영, 2010; 박소영, 2012; 박혜자, 2006; 윤명숙, 2002).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인성교육활동은 아니지만, 동시와 동요를 연계한 활동을 진행하여 유아의 언어표현력, 정서지능 효과를 밝힌 연구(김향주, 2014)에 그치거나 동요활용을 통한 인성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방법을 통한 연구(최숙경, 2011)만이 있으며,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을 실시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어린이문화를 조성하고 성장과정에 따른 정서를 다스리는데 큰 역할을 하는 동요(최숙경, 2011)를 유아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도록 조력하며, 통합적 인성교육 활동을 진행한다면 유아들의 고운 심성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획일적인 동요 가창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 활동을 구성하여 유아의 정서지능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유아의 인성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유아들에게 효과적인 음악지도를 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 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가?
- 둘째,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 활동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H지역에 소재한 J유치원 만 4세 유아 2개 학급을 46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각 1개 학급씩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인원 및 평균연령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유아의 인원 및 평균연령

| 집 단 | 변 인 | | 유아 인원수 | | | 평균연령(개월) | | |
|------|-----|----|--------|----|----|----------|-------|-------|
| | 남 | 여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 실험집단 | 9 | 14 | 9 | 14 | 23 | 56.33 | 56.71 | 56.57 |
| 비교집단 | 10 | 13 | 10 | 13 | 23 | 56.60 | 57.38 | 57.04 |

2. 연구도구

1) 정서지능 검사도구

유아의 정서지능을 검사하기 위한 도구는 김경희(1998)가 개발한 교사용 유아 정서지능 평정 척도를 사용하였다. 검사도구는 자기정서의 이용능력,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능력, 자기정서의 인식·표현 능력, 감정의 조절 및 충동 억제 능력, 교사와의 관계 능력, 또래와의 관계능력 총 6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자기정서의 이용능력 12문항,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능력 10문항, 자기정서의 인식·표현 능력과 감정의 조절 및 충동 억제 능력 9문항, 교사와의 관계 능력과 또래와의 관계 능력은 5개의 문항으로 총 50문항이다. 정서지능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는 반대되는 의미의 쌍으로 된 문장으로 구성되었고 채점방법은 담임교사가 유아의 환경과 발달적 상황을 고려하여 5점 척도에 맞추어 평정하였다. 정서지능의 문항 간 신뢰도는 전체 .92로 나타났으며, 본 검사의 하위문항 구성 및 내용 그리고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다음에 제시된 <표 2>와 같다.

<표 2> 유아의 정서지능 검사도구 구성 및 신뢰도

| 영역구분 | 내용 | 문항수 | Cronbach's α |
|------------------|---|-----|---------------------|
| 자기 정서의 이용 능력 |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당장의 작은 결과나 성취 보다는 큰 결과를 위해 기다릴 수 있는가? | 12 | .932 |
|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능력 | 타인을 고려하여 감정표현을 절절히 하며, 규칙을 정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배려하는가? | 10 | .908 |
| 자기정서의 인식·표현 능력 |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며 감정을 나타내는 말과 얼굴 표정이 일치하는가? | 9 | .857 |

| | | | |
|-------------------|---|----|------|
| 감정의 조절 및 충동 억제 능력 | 자신의 격한 감정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으며 하고 싶은 일도 참을 수 있는가? | 9 | .803 |
| 교사와의 관계 능력 | 교사에게 친근감을 보이며 교사와의 관계에서 적극적인가? | 5 | .816 |
| 또래와의 관계 능력 | 친구와 함께 어울리며 진행되는 놀이에 쉽게 참여하는가? | 5 | .853 |
| 전체 | | 50 | .924 |

2) 공감능력 검사도구

Bryant(1982)가 제작한 도구를 참고한 김향미(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공감능력 검사지’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강민주(2010)가 제작한 그림카드를 수정 및 보완하여 함께 사용하였다.

슬픔, 심적 부담, 기쁨, 불안의 4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슬픔 요인은 3문항, 심적 부담, 기쁨, 불안 요인은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공감능력 검사는 유아의 대답에 따라 정해진 배점으로 채점하였다. ‘그렇지 않다’는 0점, ‘보통이다’ 1점, ‘그렇다’ 2점, ‘매우 그렇다’는 3점으로 채점하였다. 유아들의 대답을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기 위해 큰 원, 중간 원, 작은 원, X를 그려놓고 손가락으로 짚게 하였다. 큰 원을 선택한 경우 ‘매우 그렇다’, 중간 원은 ‘그렇다’, 작은 원은 ‘보통이다’, 엑스를 선택한 경우 ‘그렇지 않다’로 구분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 범위는 슬픔 요인 0~9점, 심적 부담, 기쁨, 불안 요인은 각 0~15점이며 공감능력의 총점 범위는 0~54점이다. 채점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공감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감능력의 문항 간 신뢰도는 전체 .67로 나타났다으며, 본 검사의 하위문항 구성 및 내용 그리고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다음에 제시된 <표 3>과 같다.

<표 3> 유아의 공감능력 검사도구 구성 및 신뢰도

| 영역구분 | 내용 | 문항수 | Cronbach's α |
|------|-----------------------------|-----|--------------|
| 슬픔 | 슬픈 장면이나 슬픈 음악 등에 공감할 수 있는가? | 3 | .620 |
| 심적부담 | 심적 부담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공감할 수 있는가? | 5 | .507 |
| 기쁨 |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가? | 5 | .485 |
| 불안 | 다른 사람의 불안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가? | 5 | .673 |
| 전체 | | 18 | .667 |

3. 연구절차

1) 예비연구 및 검사자 훈련

예비조사로 유아정서지능 검사도구와 공감능력 검사도구 질문문항의 적절성, 소요시간 파악과 평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만 4세 유아 5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공감능력 질문지는 2014년 3월 9일에 실시하였고, 유아정서지능 평정척도는 2014년 3월

10일에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감능력 질문지 7번 문항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친구가 없는 아이들은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니?’의 질문을 ‘친구가 없는 아이들은 다른 친구와 놀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하니?’로 수정하였다. 유아 정서지능 질문지 응답자인 2명의 교사는 한 명의 유아를 평정하는데 약 6~7분이 소요되었으며 각 문항의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하기에 어려운 문항이 없어 본 연구도구로 사용하였다.

검사자 훈련은 실험에 참여하는 비교집단 교사를 대상으로 2014년 3월 11일에 교육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 담임교사인 본 연구자가 비교집단의 담임교사에게 본 연구의 교육적 가치와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다. 유아정서지능 질문지와 공감능력 질문지의 사전·사후 검사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도구 내용과 방법에 대해 설명해 준 후 자료를 배부하였다. 또한 활동 진행을 위한 준비와 지도상의 유의점 등에 대해 총 2회에 걸쳐 협의의 시간을 가졌다. 정서지능 검사의 검사자간 신뢰도 계수(α)는 .962, 공감능력 검사의 검사자간 신뢰도 계수(α)는 .756으로 나타났다.

2) 사전검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유아 각 24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와 비교집단 담임교사가 2014년 3월 17~21일 5일에 걸쳐 정서지능 평정과 공감능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정서지능 평정은 본 연구자와 비교집단 담임교사가 유아를 관찰한 후 정서지능을 평정하였고 소요시간은 2~3분이었다. 공감능력 검사는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연구자와 비교집단 담임교사가 교실과 분리된 공간에서 유아를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소요시간은 10분 정도였다.

3) 실험처치

(1) 실험처치 기간 및 운영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 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 및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2014년 4월 2일부터 6월 27일까지 12주 동안 매주 2회씩 총 24회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실험집단의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 활동은 1회당 3가지 유형의 활동들을 약 60분 동안 일과 중 오전 또는 오후시간대에 대·소집단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대집단은 전체 유아 23명을 대상으로, 소집단은 모둠별, 또는 3~5명씩을 대상으로 활동을 전개했다.

같은 기간에 비교집단은 생활주제에 부합하는 동요를 새노래 부르기 활동으로 실시하였다. 비교집단이 활동한 동요들은 4월 1~2주는 봄이 왔어요/ 봄이 오는 소리, 4월 3~주는 봄비/ 나비의 꿈, 5월 1~2주는 어른이 되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 5월 3~4주는 아빠 사랑해요/ 사랑, 6월 1~2주는 동네 한 바퀴/ 정다운 이웃, 6월 3~4주는 사람 많은 곳에서는/가게놀이였다.

(2)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 활동의 선정 및 구성내용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 활동은 인성교육 프로그램(교육과학기술부, 2011), 글로벌 인성교육(글로벌 인성 연구소, 2014), 동요 노랫말 지도를 통한 인성교육(박혜자, 2006), 좋은 우리 동시에 백창우가 만든 노래 꽃밭(백창우, 2009), 통합적 유아음악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서은주, 2009), 배려교육 활동이 유아의 공감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효주, 2013) 문헌들을 참고하여 동요들을 선정하였고, 통합적 활동 구성 기준을 정하였다.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활동들은 유아교육전문가 1인, 8년 경력교사 1인과 5년 경력교사 1인에 의해 협의과정을 거쳐 구성되었다.

다음은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활동의 선정 기준이다. 첫째, 활동의 주체가 되는 동요는 누리과정 인성덕목에 해당하고, 생활주제와 관련 있는 노랫말이 들어가 있는 것들로 선정하였다. 동요의 소재는 유아들이 자신들의 생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며 리듬이 복잡하지 않은 것을 선택했다. 둘째, 유아의 연령과 발달에 맞는 활동을 선정하였다. 대상연령인 만 4세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을 선정하였다. 셋째, 유치원 교육과정에 적합한 내용으로 교육과정 및 일상생활 속에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생활주제 및 타 활동영역에서도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통합적 활동을 선정하였다. 넷째, 가족, 이웃, 자연으로 교육내용의 범위를 설정하여 다양한 주제에서의 인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으며 통합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3)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활동 교수·학습 방법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활동은 유아가 활동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며 다양한 영역에서의 통합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진행하였다. 활동유형에 따라 대집단·소집단으로 활동을 했으며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토론, 협동학습, 발견탐구, 극놀이, 현장학습 등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요 부르기와 인성덕목을 주제로 하여 인성덕목이 포함된 음악교육으로부터 통합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활동 활동유형과 유형별 횟수는 음악활동 24회, 조형활동 10회, 동작활동 8회, 과학활동 7회, 문학활동 6회, 게임 5회, 역할극 4회, 요리활동 3회이다. 동요 부르기뿐만 아니라 음악 감상, 악기 연주, 음악 창작, 신체 표현 등 음악과 관련한 활동은 활동을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 활용하였다.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활동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활동

| 생활주제 | 동요명 | 인성 덕목 요소-하위내용 | 정서 지능 영역 | 공감 능력 영역 | 활동명 | 활동유형 | 집단 유형 |
|------|-----------------|------------------------------|--------------------------|----------|--------------------|---|------------|
| 봄 | 1 봄동산 꽃동산 | 존중- 생명과 환경에 대한 존중 | 자기 정서의 이용능력 | 기쁨 | 봄이 오면 | 이야기 나누기, 음악, 과학,신체 | 대집단 소집단 |
| | 2 | 존중-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 자기 정서의 인식·표현 능력 | 기쁨 | 봄의 소리를 들어 봐요 | 음악, 동작 | 대집단 |
| | 3 강아지 똥 | 존중- 생명과 환경에 대한 존중 | 교사와의 관계능력 | 슬픔 | 식물이 자라 려면 | 문학(동시), 문학(동화), 이야기 나누기, 음악 | 대집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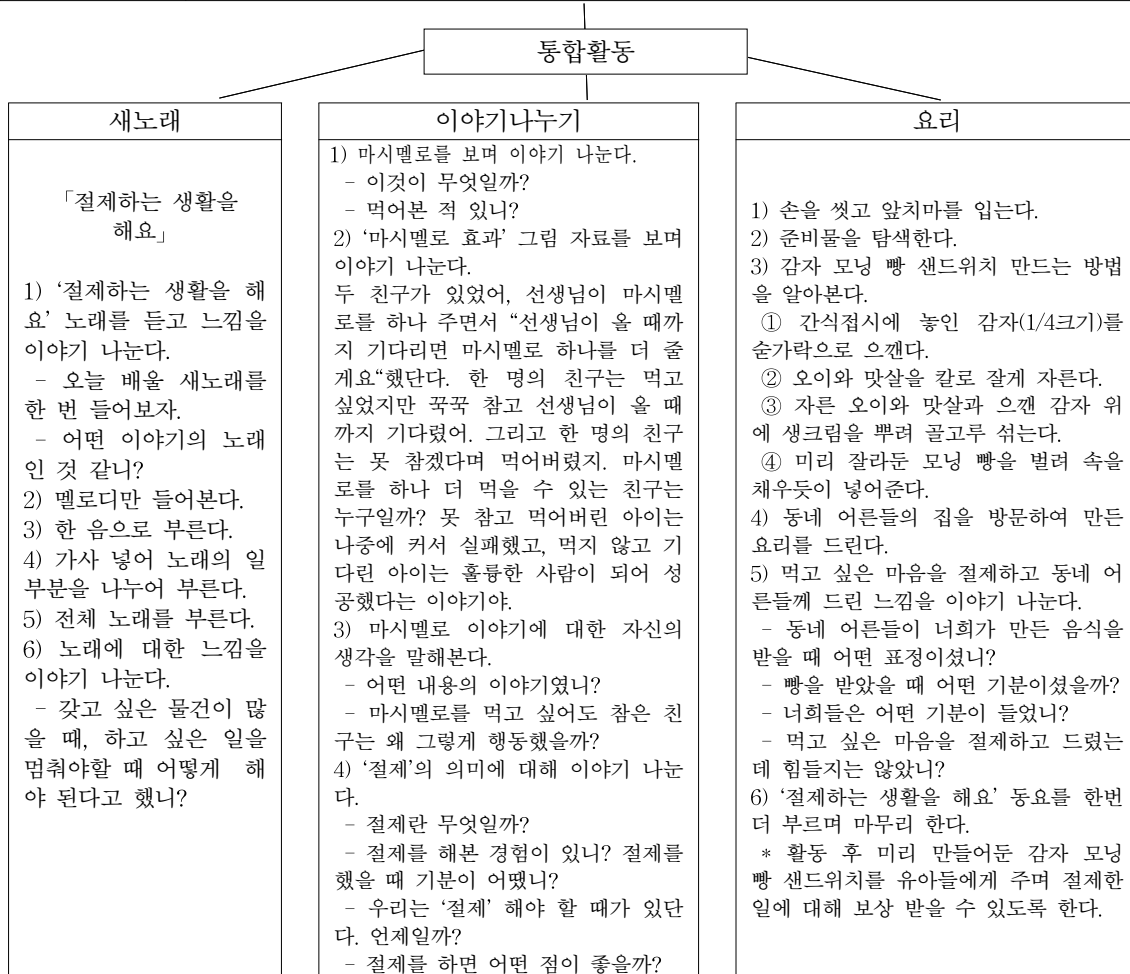
| | | | | | | | |
|----|----------------------------|--------------------------------|----------------------------|------|-----------------------------|--------------------------|------------|
| 4 | | 협력- 긍정적인 상호의존성 | 또래와의 관계능력 | 심적부담 | 강아지똥과 민들레처럼 | 음악, 게임, 조형 | 대집단 소집단 |
| 5 | 나물 노래 | 존중-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 감정의 조절 및 충동 억제 능력 | 기쁨 | 새순을 관찰 해요 | 음악, 과학, 조형 | 대집단 소집단 |
| 6 | | 나눔- 나눔을 실천하기 |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능력 | 기쁨 | 썩떡을 만들 어요 | 동작, 음악, 과학, 요리 | 대집단 소집단 |
| 7 | 아무도 안본 다고 | 질서- 사회질서 | 감정의 조절 및 충동 억제 능력 | 심적부담 | 아무도 안본 다고 | 문학(동시), 음악 | 대집단 |
| 8 | | 협력- 집단협력 | 또래와의 관계능력 | 기쁨 | 환경 포스터를 만들어요 | 음악, 동작, 조형 | 대집단 소집단 |
| 9 | 내 주변 모두를 존중 해요 | 존중-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 | 타인 정서의 인식 및 배려능력 | 심적부담 | 나만큼 소중한 우리 가족 | 음악, 이야기 나누기, 조형 | 대집단 소집단 |
| 10 | | 효- 부모님과 조부모님에 대한 효 | 또래와의 관계능력 | 불안 | 높임말을 사용 해요 | 음악, 이야기 나누기, 게임 | 대집단 |
| 11 | 나 와 가족 감사 합니다 | 효 - 부모님에 대한 효 | 자기 정서의 인식·표현 능력 | 기쁨 | 가족을 알고 사랑 할 수 있어요 | 음악, 이야기 나누기, 조형 | 대집단 소집단 |
| 12 | | 나눔- 나눔에 참여하기 | 교사와의 관계능력 | 기쁨 |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 려요 | 음악, 동작, 조형, 요리 | 대집단 소집단 |
| 13 | 옛날이 이야기 | 효- 조부모님에 대한 효 | 또래와의 관계능력 | 기쁨 | 우리는 대가족 | 음악, 게임, 역할극 | 대집단 |
| 14 | | 협력- 집단협력 | 타인 정서의 인식 및 배려능력 | 심적부담 | 옛날 이야기 함주 하기 | 음악, 문학(동화) | 대집단 |

| | | | | | | | |
|------|--------------|------------------|-------------------|------------------------------|---------------------|---------------------|-------------|
| 15 | 효도 할거 예요 | 효- 부모님에 대한 효 | 자기 정서의 이용능력 | 기쁨 | 아빠에게 드리는 솔방울 목걸이 | 음악, 과학, 조형 | 대집단 소집단 |
| 16 | | | 감정의 조절 및 충동 억제 능력 | 불안 | 소금 그림 편지 | 음악, 동작, 과학 | 대집단 소집단 |
| 17 | 행복한 우리동네 | 존중-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 자기 정서의 이용능력 | 심적부담 | 우리 동네에 있는 것 | 음악, 이야기 나누기, 조형 | 대집단 소집단 |
| 18 | | 배려- 이웃에 대한 배려 | 또래와의 관계능력 | 불안 | 우리 동네 사람들 | 음악, 역할극, 게임 | 대집단 |
| 19 | 우리가 할일 | 질서- 사회질서 | 타인 정서의 인식 및 배려능력 | 심적부담 | 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할일 | 음악, 조형, 현장학습 | 대집단 소집단 |
| 20 | | 협력- 집단협력 | 또래와의 관계능력 | 슬픔 | 차례 차례 줄을 서요 | 음악, 동작, 문학(동화), 역할극 | 대집단 |
| 우리동네 | 21 | 효- 지역사회 어른에 대한 효 | 감정의 조절 및 충동 억제 능력 | 기쁨 | 절제하고 나누는 기쁨 | 음악, 이야기 나누기, 과학, 요리 | 대집단 소집단 |
| | 22 | 절제하는 생활을 해요 | 협력- 개인적 책임감 | 감정의 조절 및 충동 억제 능력/ 또래와의 관계능력 | 심적부담/ 기쁨 | 꼭 필요한 것만 살 수 있어요 | 음악, 동작, 역할극 |
| 23 | 나는 예의바른 어린이에 | 배려 - 이웃에 대한 배려 | 자기 정서의 인식·표현 능력 | 심적부담 /슬픔 | 우리동네 사람들과 지켜야 하는 약속 | 음악, 문학(동화), 조형 | 대집단 소집단 |
| 24 | 요 | | 질서- 기초질서 | 타인 정서의 인식 및 배려능력 | 불안 /기쁨 | 예의 올림픽 | 음악, 동작, 게임 |

실험집단의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 구체적 활동안을 예시로 소개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실험집단의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활동안

| | | | | | |
|------------------|---|------------|------------------------|--------------|----|
| 생활주제 | 우리 동네 | | 일시/회차 | 6월 3주 / 21회차 | |
| 활동명 | 절제하고 나누는 기쁨 | | 동요명 | 절제하는 생활을 해요 | |
| 활동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제하고 나누는 기쁨을 느낀다. • 노래를 즐겨 부를 수 있다. • 요리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 우리 동네 어른들을 공경해야 함을 알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 | | | | |
| 인성 덕목 요소-하위내용 | 나눔-나눔을 실천하기, 존중-자신에 대한 존중, 효-지역사회어른에 대한 효 | 정서지능 영역 |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능력 | 공감능력 영역 | 기쁨 |
| 활동자료 | '절제하는 생활을 해요' 가사판, 피아노, 마시멜로 실물, '마시멜로 효과 그림자료', 모닝빵, 오이, 맛살, 플라스틱 칼, 매트 도마, 감자, 생크림, 숟가락, 간식접시 | | | | |



5) 사후검사

사후검사는 실험처치 후 2014년 6월 30일~7월 4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정서지능과 공감능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분석을 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 배경변인은 기술통계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해 평균과 빈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검사 점수를 독립표본 t검증을 한 결과 두 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두 집단(실험집단, 비교집단)간의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유아의 정서지능 전체점수와 하위영역인 자기 정서의 이용능력, 타인 정서의 인식 및 배려 능력, 자기 정서의 인식·표현 능력, 감정의 조절 및 충동 억제 능력, 교사와의 관계 능력, 또래와의 관계 능력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활동이 각 정서지능 하위 변인에 미치는 영향

| | 영역 | 실험집단(N=23) | | 비교집단(N=23) | | t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 전체 점수 | 사전검사 | 3.64 | .35 | 2.43 | .56 | 8.85 ^{****} |
| | 사후검사 | 4.69 | .20 | 2.96 | .60 | 12.96 ^{****} |
| | 조정된 평균 | 4.23 | .07 | 3.42 | .07 | |
| 집단에 따른 유아의 자기 정서의 이용능력 점수 | 사전검사 | 3.46 | .71 | 2.18 | .85 | 5.57 ^{****} |
| | 사후검사 | 4.62 | .35 | 2.87 | .76 | 10.01 ^{****} |
| | 조정된 평균 | 4.23 | .09 | 3.24 | .09 | |
| 집단에 따른 유아의 타인 정서의 인식 및 배려 능력 점수 | 사전검사 | 3.40 | .56 | 2.39 | .81 | 4.91 ^{****} |
| | 사후검사 | 4.59 | .31 | 3.07 | 1.20 | 5.86 ^{****} |
| | 조정된 평균 | 4.20 | .16 | 3.47 | .16 | |
| 집단에 따른 유아의 자기 정서의 인식·표현 능력점수 | 사전검사 | 3.41 | .46 | 2.20 | .70 | 6.89 ^{****} |
| | 사후검사 | 4.74 | .23 | 2.88 | .63 | 13.32 ^{****} |
| | 조정된 평균 | 4.45 | .10 | 3.17 | .10 | |
| 집단에 따른 유아의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능력 점수 | 사전검사 | 3.77 | .71 | 2.89 | .78 | 4.01 ^{****} |
| | 사후검사 | 4.71 | .32 | 3.30 | .67 | 9.08 ^{****} |

| | | | | | | |
|-----------------------------|--------|------|-----|------|-----|----------|
| | 조정된 평균 | 4.45 | .07 | 3.56 | .07 | |
| 집단에 따른 유아의 교사와의 관계 능력 점수 | 사전검사 | 4.36 | .28 | 2.69 | .61 | 11.98*** |
| | 사후검사 | 4.67 | .39 | 2.79 | .65 | 11.83*** |
| | 조정된 평균 | 3.79 | .07 | 3.67 | .07 | |
| 집단에 따른 유아의 또래와의 관계 능력 점수 | 사전검사 | 3.43 | .46 | 2.20 | .69 | 7.13*** |
| | 사후검사 | 4.83 | .21 | 2.84 | .56 | 15.87*** |
| | 조정된 평균 | 4.53 | .08 | 3.15 | .08 | |

*** $p < .001$

<표 6>에서 집단에 따른 정서지능 전체점수는 사전검사에서 실험집단은 3.64, 비교집단은 2.43으로 실험집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8.85$, $p < .001$), 사후검사에서도 실험집단이 4.69, 비교집단이 2.96으로 실험집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12.96$, $p < .001$) 두 집단 모두에서 정서지능 전체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서 집단에 따른 유아의 자기 정서의 이용능력 점수는 사전검사에서 실험집단은 3.46, 비교집단은 2.18로 실험집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5.57$, $p < .001$), 사후검사에서도 실험집단이 4.62, 비교집단이 2.87로 실험집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10.01$, $p < .001$) 두 집단 모두에서 유아의 자기 정서의 이용능력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서 집단에 따른 유아의 타인 정서의 인식 및 배려 능력 점수는 사전검사에서 실험집단은 3.40, 비교집단은 2.39로 실험집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4.91$, $p < .001$), 사후검사에서도 실험집단이 4.59, 비교집단이 3.07로 실험집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5.86$, $p < .001$) 두 집단 모두에서 유아의 타인 정서의 인식 및 배려 능력 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서 집단에 따른 유아의 자기 정서의 인식·표현 능력 점수는 사전검사에서 실험집단은 3.41, 비교집단은 2.20으로 실험집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6.89$, $p < .001$), 사후검사에서도 실험집단이 4.74, 비교집단이 2.88로 실험집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13.32$, $p < .001$) 두 집단 모두에서 유아의 자기 정서의 인식·표현 능력 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서 집단에 따른 유아의 감정의 조절 및 충동 억제 능력 점수는 사전검사에서 실험집단은 3.77, 비교집단은 2.89로 실험집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4.01$, $p < .001$), 사후검사에서도 실험집단이 4.71, 비교집단이 3.30으로 실험집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9.08$, $p < .001$), 두 집단 모두에서 유아의 감정의 조절 및 충동 억제 능력 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서 집단에 따른 유아의 교사와의 관계 능력 점수는 사전검사에서 실험집단은 4.36, 비교집단은 2.69로 실험집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11.98$, $p < .001$), 사후검사에서도 실험집단이 4.67, 비교집단이 2.79로 실험집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11.83$, $p < .001$) 두 집단 모두에서 유아의 교사와의 관계 능력 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서 집단에 따른 유아의 또래와의 관계 능력 점수는 사전검사에서 실험집단은 3.43, 비교집단은 2.20으로 실험집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7.13$, $p < .001$), 사후검사에서도 실험집단이 4.83, 비교집단이 2.84로 실험집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15.87$, $p < .001$) 두 집단 모두에서 유아의 또래와의 관계 능력 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정서지능 전체점수와 각 하위영역의 사전점수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평균이 차이가 난 것은 집단 선정에서 기존 2개 학급을 각각 실험, 비교집단으로 선정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집단의 실험처치이후 증가된 사후검사 점수의 차이검증과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여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의 유의미한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교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점수 향상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을 독립변수로 하고 정서지능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정서지능 사후 점수와, 유아의 정서지능을 하위영역인 자기 정서의 이용능력, 타인 정서의 인식 및 배려 능력, 자기 정서의 인식·표현 능력, 감정의 조절 및 충동 억제 능력, 교사와의 관계 능력, 또래와의 관계 능력을 각각 종속변수로 공변량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유아의 정서지능에 대한 집단 간 공분산 분석

| | 변량원 | 자승합(SS) | 자유도(df) | 평균제곱(MS) | F |
|----------------------|-----------|---------|---------|----------|-----------------------|
| 전체 점수 | 공변량(사전점수) | 5.84 | 1 | 5.84 | 98.88 ^{***} |
| | 주효과(집단) | 2.59 | 1 | 2.591 | 43.93 ^{***} |
| | 오차 | 2.42 | 41 | .06 | |
| | 합계 | 685.42 | 44 | | |
| 자기 정서의 이용능력 | 공변량(사전점수) | 9.33 | 1 | 9.33 | 67.09 ^{***} |
| | 주효과(집단) | 6.67 | 1 | 6.67 | 47.98 ^{**} |
| | 오차 | 5.84 | 42 | .14 | |
| | 합계 | 673.62 | 45 | | |
| 타인 정서의 인식 및 배려능력 | 공변량(사전점수) | 13.05 | 1 | 13.05 | 28.15 ^{***} |
| | 주효과(집단) | 3.85 | 1 | 3.85 | 8.30 ^{**} |
| | 오차 | 19.48 | 42 | .46 | |
| | 합계 | 723.56 | 45 | | |
| 자기 정서의 인식·표현 능력 | 공변량(사전점수) | 3.49 | 1 | 3.49 | 23.54 ^{***} |
| | 주효과(집단) | 9.17 | 1 | 9.17 | 61.88 ^{***} |
| | 오차 | 6.38 | 43 | .15 | |
| | 합계 | 717.10 | 46 | | |
| 감정의 조절 및 충동 억제 능력 | 공변량(사전점수) | 8.46 | 1 | 8.46 | 101.29 ^{***} |
| | 주효과(집단) | 6.57 | 1 | 6.57 | 78.71 ^{***} |
| | 오차 | 3.59 | 43 | .08 | |
| | 합계 | 772.40 | 46 | | |
| 교사와의 관계 | 공변량(사전점수) | 10.76 | 1 | 10.76 | 246.26 ^{***} |
| | 주효과(집단) | .04 | 1 | .04 | .93 |
| | 오차 | 1.88 | 43 | .04 | |
| | 합계 | 691.48 | 46 | | |
| 또래와의 관계 | 공변량(사전점수) | 3.78 | 1 | 3.78 | 38.79 ^{***} |
| | 주효과(집단) | 10.09 | 1 | 10.09 | 103.53 ^{***} |
| | 오차 | 4.19 | 43 | .10 | |
| | 합계 | 731.56 | 46 | | |

** $p < .01$, *** $p < .001$

<표 7>에 따르면 집단 간에 정서지능 전체점수는 유의한 차이($F=43.93$, $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6>에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사후검사에서 정서지능 전체점수가 높게 나타나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 전체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표 7>에 따르면 집단 간에 자기 정서의 이용능력 점수는 유의한 차이($F=47.98,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6>에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사후검사에서 자기 정서의 이용능력 점수가 높게 나타나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활동이 유아의 자기 정서의 이용능력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표 7>에 따르면 집단 간에 타인 정서의 인식 및 배려 능력 점수는 유의한 차이($F=8.30,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6>에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사후검사에서 타인 정서의 인식 및 배려 능력 점수가 높게 나타나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활동이 유아의 타인 정서의 인식 및 배려 능력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표 7>에 따르면 집단 간에 자기 정서의 인식·표현 능력 점수는 유의한 차이($F=61.88,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6>에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사후검사에서 자기 정서의 인식·표현능력이 높게 나타나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활동이 유아의 자기 정서의 인식·표현능력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표 7>에 따르면 집단 간에 감정의 조절 및 충동 억제 능력 점수는 유의한 차이($F=78.71,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6>에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사후검사에서 감정의 조절 및 충동 억제 능력 점수가 높게 나타나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활동이 유아의 감정의 조절 및 충동 억제 능력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표 7>에 따르면 집단 간에 교사와의 관계 능력 점수는 유의한 차이($F=.93$)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활동이 유아의 교사와의 관계 능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표 7>에 따르면 집단 간에 또래와의 관계 능력 점수는 유의한 차이($F=103.53,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6>에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사후검사에서 또래와의 관계 능력 점수가 높게 나타나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활동이 유아의 또래와의 관계 능력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2.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활동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활동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두 집단(실험집단, 비교집단)의 공감능력 사전, 사후검사와 조정평균 점수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집단에 따른 유아의 공감능력 사전점수

| 영역 | 구분 | 실험집단($n=23$) | | 비교집단($n=23$) | | t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 전체점수 | 사전점수 | 1.84 | .36 | 1.68 | .42 | 1.42 |
| | 사후점수 | 2.32 | .27 | 1.80 | .43 | 4.85*** |
| | 조정 평균 | 2.27 | .06 | 1.85 | .06 | |
| 슬픔 | 사전점수 | .64 | .76 | .41 | .46 | 1.25 |

| | | | | | | |
|------|-------|------|-----|------|-----|---------------------|
| | 사후점수 | 1.48 | .73 | .59 | .64 | 4.38 ^{***} |
| | 조정 평균 | 1.42 | .13 | .66 | .13 | |
| | 사전점수 | 2.10 | .55 | 1.80 | .53 | 1.93 |
| | 사후점수 | 2.65 | .30 | 1.95 | .49 | 5.92 ^{***} |
| 심적부담 | 조정 평균 | 2.64 | .09 | 1.96 | .09 | |
| | 사전점수 | 2.30 | .32 | 2.16 | .64 | .94 |
| | 사후점수 | 2.43 | .40 | 2.23 | .53 | 1.45 |
| | 조정 평균 | 2.40 | .08 | 2.27 | .08 | |
| 기쁨 | 사전점수 | 1.85 | .64 | 1.85 | .64 | .00 |
| | 사후점수 | 2.35 | .58 | 1.95 | .76 | 2.01 |
| | 조정 평균 | 2.35 | .10 | 1.95 | .10 | |
| | 사전점수 | 1.85 | .64 | 1.85 | .64 | .00 |

비교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점수 향상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을 독립변수로 하고 공감능력 사전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감능력 사후 점수와, 유아의 공감능력의 하위영역인 슬픔, 심적부담, 기쁨, 불안영역의 점수를 각각 종속변수로 공변량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유아의 공감능력에 대한 집단 간 공분산 분석

| | 변량원 | 자승합(SS) | 자유도(df) | 평균제곱(MS) | F |
|-------|-----------|---------|---------|----------|----------------------|
| 전체 점수 | 공변량(사전점수) | 2.10 | 1 | 2.10 | 25.94 ^{***} |
| | 주효과(집단) | 1.92 | 1 | 1.92 | 23.78 ^{***} |
| | 오차 | 3.48 | 43 | .08 | |
| | 합계 | 203.16 | 46 | | |
| 슬픔 | 공변량(사전점수) | 4.85 | 1 | 4.85 | 13.22 ^{**} |
| | 주효과(집단) | 6.45 | 1 | 6.45 | 17.59 ^{***} |
| | 오차 | 15.77 | 43 | .37 | |
| | 합계 | 79.00 | 46 | | |
| 심적부담 | 공변량(사전점수) | .09 | 1 | .09 | .56 |
| | 주효과(집단) | 4.88 | 1 | 4.88 | 29.72 ^{***} |
| | 오차 | 7.06 | 43 | .16 | |
| | 합계 | 256.20 | 46 | | |
| 기쁨 | 공변량(사전점수) | 3.52 | 1 | 3.52 | 24.84 ^{***} |
| | 주효과(집단) | .17 | 1 | .17 | 1.18 |
| | 오차 | 6.10 | 43 | .14 | |
| | 합계 | 260.84 | 46 | | |
| 불안 | 공변량(사전점수) | 9.86 | 1 | 9.86 | 41.35 ^{***} |
| | 주효과(집단) | 1.84 | 1 | 1.84 | 7.72 ^{**} |
| | 오차 | 10.25 | 43 | .24 | |
| | 합계 | 234.16 | 46 | | |

^{**} $p < .01$, ^{***} $p < .001$

<표 9>에 따르면 집단 간에 공감능력 전체점수는 유의한 차이($F=23.78$, $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8>에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사후검사에서 공감능력 전체점수가 높게 나타나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활동이 유아의 공감능력 전체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표 9>에 따르면 집단 간에 슬픔 영역 점수는 유의한 차이($F=17.59,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8>에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사후검사에서 슬픔 영역 점수가 높게 나타나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활동이 유아의 슬픔영역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표 9>에 따르면 집단 간에 심적부담 영역점수는 유의한 차이($F=29.72,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8>에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사후검사에서 심적부담 영역점수가 높게 나타나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활동이 유아의 심적부담 영역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표 9>에 따르면 집단 간에 자기 정서의 인식·표현 능력 점수는 유의한 차이($F=1.18$)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활동이 기쁨영역 공감능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표 9>에 따르면 집단 간에 감정의 조절 및 충동 억제 능력 점수는 유의한 차이($F=7.72,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8>에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사후검사에서 불안영역 점수가 높게 나타나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활동이 유아의 불안영역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유아의 인성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유아들에게 효과적인 음악지도를 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나타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 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유아들과 인성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비교집단의 유아들 간 정서지능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래는 감정을 풍부하게 느끼고 표현하는데 도움을 주어 유아들이 감정이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발달시켜 정서지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힌 박혜진(2001)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음악극 활동 과정 중 ‘신체표현’이나 ‘노래 부르기’를 통해 등장인물들이 처한 상황에 따른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발달하였다는 서동명(2005)의 연구도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 활동이 정서의 인식과 표현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노래와 동화를 통합한 음악극 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김미숙(2007)의 연구에서도 유아들이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감정이입하여 부르기 때문에 타인인식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도 본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자기정서의 이용능력,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능력,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능력,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능력, 또래와의 관계능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중 교사

와의 관계능력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 이유는 사전검사 시기에 이미 교사와 유아들이 친숙한 관계였기 때문에 즉, 사전검사 점수가 이미 높아 사후검사에서 변화의 여지가 낮았을 것이라 추측된다.

둘째,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활동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 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유아들과 인성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비교집단의 유아들 간 공감능력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타인의 배려, 돕기, 나누기, 존중 등의 내용이 내포된 교육 프로그램이 타인정서 인식 및 감정입력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박복숙(2002)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맥락을 같이 하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 활동에 제시된 동요 내용과 인성덕목을 바탕으로 한 확장활동을 통해 타인의 정서와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활동을 통하여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동요를 부르며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고, 연계되는 인성교육활동을 경험함으로써 타인의 생각과 행동을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아의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실험집단의 슬픔, 심적 부담, 불안영역의 점수가 비교집단의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쁨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슬픔이나 좌절감,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타인의 감정 상태를 파악해가면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자제하거나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Lewis와 Michaelson(1983)의 연구(이효주, 2013, 재인용)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지만, 현지영(2013)이 연구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공감능력과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선행연구에서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유아의 공감 능력 하위요인에서 기쁨요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슬픔 요인과 심적 부담요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말한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활동이 타인이 슬퍼하거나 울 때 함께 슬퍼해주는 슬픔요인과 타인이 심적부담을 느낄 때 그 부담을 함께 느끼는 심적부담 요인, 타인에 대한 걱정, 불안, 무서움을 함께 느끼는 불안 요인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타인의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기쁨 요인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Flavell(1985)은 아동이 발달함에 따라 나타나는 공감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그 중 ‘비공감적 추론’ 이라고 할 수 있는 유형은 아동이 타인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추론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그와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타인을 보고 타인의 감정이 기쁨 것이라는 것은 추론하지만 기쁨을 느끼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최수량, 2002, 재인용). 둘째, Hoffman(1984, 1987)은 공감적 정서와 사회-인지적 발달을 연합시켜 공감의 발달단계를 네 단계로 제시하였는데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의 단계’ 로 간단한 장면에서 타인의 행복 또는 슬픔을 인식하고 공감반응을 할 수 있지만 괴로워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상만으로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공감할 수 없다고 말했다(현지영, 2013, 재인용). 이처럼 유아들이 기쁨 요인에서 비공감적 추론을 했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타인을 상상으로 멀리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여 공감할 수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분석 결과들을 중심으로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인성교육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공감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므로 유아들의 인성 교육 지도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앞으로 인성 교육활동을 위해 유아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동요에 대한 창작과 통합적 인성교육 활동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표집에 있어서 H지역에 위치한 대상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 및 표집대상의 수를 다양화해서 연구에 접근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만 4세 유아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지만, 후속연구에서는 대상 유아의 연령을 더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동요는 대부분이 창작동요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전래동요나 국악동요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동요를 활용하여 연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동요를 활용하여 유아의 인성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동요를 활용한 음악적 흥미, 음악적 능력, 음악적 태도 등 음악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보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음악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접근방법의 음악활동 교수방법을 경험할 수 있는 교사 연수의 기회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민주 (2010).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과 유아의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운우 (2014). 협력중심 인성교육활동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대인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과학기술부 (2011). **유치원 기본과정 내실화를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곽영숙 (2010). 통합적 음악 감상활동이 유아의 음악적 개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진영 (2010). 초등학교에서의 인성 중심 동요 지도를 위한 CD-ROM멀티미디어 교수 자료 개발과 활용 방안.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유리 (2011). 유아음악교육의 실태 조사 연구: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글로벌 인성 연구소 (2014). **글로벌 인성교육 교사용 지도서-STEP 2 바른인성**. 서울: 글로벌 인성연구소.
- 김경희 (1998). 교사용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숙 (2007). 동화를 활용한 음악극 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 (2012). 유아기 음악교육이 인성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희 (2011).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음악교육 자신감에 따른 유아음악교육 인식 및 실태.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미, 김현주 (2015). 그림책을 활용한 인성교육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1), 231-247.
- 김우숙 (1997). 유아의 음악 청취력 향상을 위한 분석적 감상수업의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실 (1999). Gordon유아음악교육방법의 적용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 선정된 지역사회 유아들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인희 (201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정서지능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 (2007). 부모역할지능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향주 (2014). 노래로 부르는 동시 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미숙 (2014). 동화를 통한 가정연계 인성교육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용린 (1997). 정서지능의 의미와 중요성. 성숙한 감성교육의 방향 모색: 유아교육. 한국어린이육영회(1996년도 유아교육 학술대회 자료).
- 박복숙 (2002). 친사회적 교육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소영 (2012). 동요지도가 어린이의 정서지능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4학년을 중심으로. 경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연희 (2011). 국악교육이 유아에게 미치는 다양한 영향: 인성중심위주.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옥희 (2001). 통합적 음악 감상활동이 유아의 음악적 창의성 및 정서능력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자 (2006). 동요 노랫말 지도를 통한 인성교육 :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진 (2001). 노래극 활동을 통한 통합적 교육활동 경험이 유아의 자아개념, 조망수용능력 및 음악능력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창우 (2009). **좋은 우리 동시로 백창우가 만든 노래 꽃밭**. 파주: 보리.
- 서동명 (2005). 유아 음악극 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은주 (2009). 통합적 유아음악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5(1), 25-40.
- 송수현 (2011). 통합적 접근을 통한 음악능력이 유아의 음악능력과 정서지능 발달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명숙 (2002). 초등학생의 바람직한 인성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동요연구: 창작 동요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선아 (2010). 통합 상황에서의 소집단 공감활동이 자폐 범주성 장애 유아의 공감능력, 정서 표현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희 (1999). **아동음악과 동작**. 서울: 동문사.
- 이윤옥 (1998). **유아를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서울: 창지사.
- 이진희 (2014). 통합적 인성교육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경 (2013). 인성교육 관련 그림책을 활용한 동극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효주 (2013). 배려교육 활동이 유아의 공감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영 (2011). 음악교육이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기 음악교육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여진 (2007). 유아기 음악교육이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희 (2012). 동화를 활용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의 효과: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또래유능성.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진 (2010). 음악교육이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아기 음악교육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주 (2005). 유아 음악 교육의 현장 실태 연구.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량 (2001). 아버지의 언어비교유형과 유아의 공감 수준과의 관계.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숙경 (2011). 동요활용을 통한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 미취학 아동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연우 (2013). 그림책을 활용한 인성교육 활동이 유아 또래상호작용과 타인정서 인식에 미치는 효과.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지영 (2013). 공감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공감능력과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Lickona, T. (1993). The return of character education. *Educational Leadership*, 51(3), 6-11. <http://web.b.ebscohost.com>에서 2015년 2월 14일 출력.
- Osuna, B. L. (2011). Psychological effects of music with lyrics: A methodological study. Fielding Graduate University, ProQuest, UMI Dissertations Publishing, 3454580. <http://search.proquest.com>에서 2015년 3월 30일 출력.
- Richburg, M. & Fletcher, T. (2002). Emotional intelligence: Directing a child's emotional education. *Child Study Journal* 32(1), 31-38. <http://web.b.ebscohost.com/ehost>에서 2015년 3월 30일 출력.
- Wiehe, J. A. (1996). Music and lyrics: A study of perceived meaningfulness.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ProQuest, UMI Dissertations Publishing, 9719517. <http://search.proquest.com>에서 2015년 3월 30일 출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impact of integrated character education activities involving children's songs o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pathic abilities. Research subjects were recruited from J preschool in H County. There were a total of 46 four-year old children who were divided into test and control groups. For 12 weeks, these children participated in activities two times per week for a total of 24 integrated character education activity sessions which consisted of learning and singing children's songs and integration of activities such as storytelling, music, science, building, movement, literature, and cooking. The summary of research findings is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emotional intelligence between the test group which participated in integrated character education activities involving children's songs and the control group. Secondl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empathic abilities between the test group which participated in integrated character education activities involving children's songs and the control group.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writing songs for children and various developed programs should be needed for character education activities.

▶*Key Words* : *children's song, integrated character education activities, emotional intelligence, empathic ability*

논문투고 2015. 02. 14.
수정원고접수 2015. 03. 31.
최종게재결정 2015. 04. 09.